

기고

겨울철 전기화재,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예방하자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겹침, 목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 시 간헐적으로 켜켜 켜주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겹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또 열선은 겹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가 안전하다.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 ▲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 ▲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 ▲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 ▲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하지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위승빈

인간의 극단적 잔인성! 그 어디까지일까. 1980년 5월 광주에서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생지옥이 펼쳐졌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비규환이. 철천지원수를 만나서 저질렀다면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생면부지의 20대 중반 여성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더욱 저주스러운 것이다. 그것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현 정부와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중반의 여성에게 악마보다도 훨씬 더 추악하고 악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런 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시체처럼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러다가 그 당시 화정동 소재 국군통합병원으로 그 누군가가 옮겨졌다. 그런 상태에서도 미리 옮겨져서 입원해 있던 부상자들을 도와왔다.

처음에는 그녀가 건강한 줄 알았다. 전두환 군부에 의해 중상을 당한 환자들을 밤늦게까지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은 난도질 처진 성기 부위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 소독솜이 없어서 다른 환자들의 환부를 닦은 후 쓰레기통에 버려진 피 젖은 솜들을 주어다가 닦았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료진들은 깨끗한 솜을 주면서 도와주었다. 그것도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보복을 전두환 패거리들로부터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군통합병원은 여성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기에 그 정도의 선에서만 도움을 받았었다.

그러다가 1980년 6월 20일부터인가부터 민간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이 사람 역시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 악마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모를 일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평생 죄를 뉘우치면서 절거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으리라 믿는다. 그럴 인간 같았으면 애당초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악마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중반쯤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생존해 있다면 그 악마의 성격은 지금도 변함없으리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형성된 악마성은 전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포악한 작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니까. 각살하고 지금부터라도 국가 차원에서 그 악마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악마의 본성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또 어디에선가 또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쯤 수도 없이 또 다른 탈을 쓰고서 흉악한 작태들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은가. 지금도 미혼인 그 피해자는 생면부지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결혼할 기회도 있었으나 몸이 망가져 버렸기에 사랑하는 남자를 병혹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가슴으로는 한 없이 통곡하면서, 이토록 처참하게 공권력과 그를 범지한 악마로 인해 한 여인의 삶은 망가지고 또 망가져 버린 것이다. 현 정부와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해 줘야 할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응급환자를 살리는 힘은 전문 장비나 구급대원의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고 순간 가장 먼저 환자 곁에 있는 '목격자', 바로 군민 여러분이 더 큰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119가 도착하기 전 주변인이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는지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손길, 바로 우리 이웃입니다

해남군은 넓은 농경지와 산림, 해안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외곽 마을이나 농작업 현장에서는 구급대 도착까지 시간이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심정지·호흡곤란 등 급성 질환 발생 위험도 더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CPR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곧 생명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초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생명을 살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반대로 초기 대응이 늦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이 아닌 '즉시 행동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해남소방서는 군민이 주저하지 않고 CPR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생·주민 대상

체협교육, 의용소방대 연계 교육,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마을회관 방문 이동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생명 지킴이는 바로 군민 여러분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손으로 30회의 흉부압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내가 시작한다"는 용기가 곧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힘입니다. 해남소방서는 군민과 함께 더 안전한 지역사회, 생명이 존중받는 해남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춘현 해남소방서장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음력 10월 23일)

Grid of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nd 50th anniversary.